

## 두산, 영국 수처리기업 인수

두산중공업(대표 박지원)은 영국 수처리 전문기업인 엔퓨어(Enpure)를 인수했다고 11월13일 발표했다.

1970년대 초 설립된 엔퓨어는 전처리 설비 설계, 제작 기술, 상·하수 등 수처리 부문에서 세계 정상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11년 매출이 1000억원에 달했다. 지금까지 약 2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.

특히, 용존 공기 부상형 장치(DAF: Dissolved Air Flotation)와 이중 여과기(DMF: Dual Media Filter) 등 전처리의 핵심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.

두산중공업은 엔퓨어 인수를 계기로 역삼투압 방식 사업과 담수를 포함한 기존 수처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2/11/13>